



**공동체 소식**



## 대림 제1주일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한결같이 기억하시고  
 풍요로운 은총의 손길을 펼치시어,  
 저희가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아드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가정
-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가정

☞ 12월 기도 지향 가정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위령 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연관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림시기**

이번 주일부터는 전례주년의 시작이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12/5(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미사 : 12/6(토) 오전 10시, 묵주의 기도 후 미사

**판공성사**

- 1구역 : 12/6 오후 6시, 김정원 베드로 댁
- 2구역 : 12/19 오후 7:30 홍순익 마르티노 댁
- 3구역 : 12/13 오후 7시 김병철 베네딕도 댁

**Gerard Alba 신부님 첫 미사**

12/7(일) 중심미사 때 Gerard Alba 신부님의 첫 미사와 강복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캔사스 한인회 주최, 송년잔치가 12/14(일) 오후 5:30에 Marriott Hotel에서 있습니다.
- Thanksgiving Day를 맞아 만찬을 준비해 주신 구역회와 사이드 디쉬로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88	340	155/498	92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차호섭 요셉	차서은 세라피나
	안광민 제임스	차민서 임마누엘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찬 미카엘
	정준구 파비아노	차서은 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은유나 요안나 선하서 미카엘라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 유경애, 한준희
차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23	80명	398불	900불
현교정, 유길수, 김호원(총 3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여는 대림 시기의 첫날입니다.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구세주께서 사람이 되시어 오시는 강생의 신비를 준비하며 깨어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성찰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겠다는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림묵상**

**행복한 종**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 시기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한층 더 깨어 기다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림 시기 동안 말씀 앞에 머물러 그분의 뜻을 경청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등불을 들고 오시는 주인을 맞이하는 행복한 종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63,16ㄹ-17.19ㄸㄹ;64,2ㄴ-7 < 아,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

**화 답 송 :**



기 뻐 하 며 주 님 의 집 에 가 리 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은 이미 서 있노라. ◎
-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저기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저기에는 재판하는 자리가 있고 다윗 가문 옥좌가 놓여 있도다. ◎
- 예루살렘 위하여 평화를 빌어 주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 있기를  
 너의 성 그 안에 평화가 있기를 너의 궁 그 안에 평화가 있기를. ◎
- 내 형제 벉들 위하여 말하노라 평화가 나와 함께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모든 행복을 나는 비노라. ◎

**제 2 독서 :** 1코린1,3-9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 마르13,33-37 <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

# 세 마

## “깨어 있는 삶”



월요일이면 농협을 찾아갑니다. 주일미사 봉헌금을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창구 직원은 저를 정말 반갑게 맞이합니다. 제가 잘 생기거나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은행에 부족한 1000원권 지폐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가던 어느 날 문득 지폐에 새겨져 있는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삶’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황, 이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모두 조선시대 인물이고 성(姓)씨가 ‘이’이거나 이씨의 부인입니다. 화폐에 새겨진 인물은 그 나라 국민 대부분에게 존경을 받고 국가의 영광을 위해 철저한 봉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씨조선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건국(1919년 임시정부 수립)된 지 1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대한민국을 대표할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과연 누가 우리에게 모범적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삶, 확고하게 인간다운 삶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거나 삶의 모범을 보여준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퇴계 이황(1501~1570)·남명 조식(1501~1572) 선생님의 삶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 분은 대학자이고 조선의 사상사에 큰 획을 그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두 분의 전성기는 명종(1534~1567) 시대입니다. 문정왕후의 8년간 수렴청정과 윤원형 등 외척 세력의 부정부패·전횡으로 백성들은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관직 생활과 낙향을 반복하다가 안동에서 후진을 양성합니다. 그에 반해 조식 선생님께서도 철저하게 관직을 마다하고 목숨을 건 상소문으로 문정왕후와 명종에게 퇴진과 참다운 지도자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의병장 곽재우, 정인홍 등 훌륭한 후진을 양성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깨어 있는 삶을 권고합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음’은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혹이나 세상의 가치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진리이신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는 삶은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도시 본당 교우분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하루에 묵주기도를 15단 이상 바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신자들이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교우분들께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생존경쟁을 하며 나아가고 있겠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로로 떳떳하게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명료하고 확고하게 ‘믿음, 정의,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믿음과 정의,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한 마디로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국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2사무 11,2)”라는 말씀을 통해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왕은 무엇을 하였기에 남들은 잘 준비를 하는 저녁 시간에 일어났을까요. 밤낮이 바뀐 삶, 이는 다윗 임금에 죄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대한민국의 존경할 대상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깨어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시대의 요청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확고하고 명료하게 봉헌한 대한민국의 인물과 교회의 어른을 찾아보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 안동교구 박재식 토마스 신부 -

# 주춧돌

## 제 2 편 은총의 샘인 성사와 기도



### 제3장 성체성사

사실 나는 주님께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1코린 11,23-26).

#### 【주석】

**주님께에서 받은 것** : 주님께에서 내려오는 전승을 받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최후만찬과 관련된 바오로 사도의 이 전승은 루카 22,14-20에 나오는 것과 매우 가깝다(주석 성경, 신약, 638).

**잡히시던** : 직역하자면, 넘겨지시던, 또는 팔아넘겨지시던, 배신당하시던의 뜻이다(상동).

**이 잔** :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6-17).

#### 【설명】

왜 성체성사(聖體聖事)를 7성사의 중심이라고 하는가? 성체성사는 성사생활의 중심(中心)이자 정점(頂點)이며, 그 성사를 통해 각 그리스도 신자는 세례의 신비로 비롯된 구속의 구원능력을 받게 된다(인간의 구원자, 20항).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의 성사다. 성체성사는 성찬례(Eucharistia: 감사제), 주님의 만찬, 빵 나눔, 성찬 모임, 거룩한 희생제사, 하느님의 거룩한 전례, 거룩한 미사(Missa)라고 불린다.

#### 【교회의 가르침】

▶ 성체성사는 이 유기체 안에서 “성사 중의 성사”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성사는 마치 자신들의 목적을 향하듯 성체성사를 지향하고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211항).

▶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례의 희생 제사는 동일한 제사이다.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단지 봉헌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되는 이 신적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제헌하고 계시기 때문에……이 희생 제사는 참으로 속죄의 제사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67항).

▶ 모든 거룩한 미사는, 정성된 마음으로 참례할 때 우리 영혼에 놀라운 효과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물질적 은총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니 이런 은총을 얻겠다고 헛된 곳에 돈을 쓰지 마시고, 거룩한 미사에 참례하십시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